

전주 도심 허파, 바람길 숲 조성

시, 총9억8000만원 투입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1년까지 200억으로
백제대로 곳곳에
녹지공간 만들기



백제대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전(왼쪽), 후(오른쪽).

전주시 교통의 대동맥인 백제대로 주변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200억원을 투입해 백제대로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만드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명주골네거리부터 꽃밭정네거리까지 백제대로 구간 중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넓은 콘크리트 포장면을 걷어내고, 하천과 만나는 구간의 주풍방향과 풍속 등을 분석해 가로변에 가로수와 띠녹지, 벽면녹화 등 녹지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불필요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수목 식재하면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람길 숲 조성 등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이 줄어드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 △진주를 둘러싼 모악산·고덕산·묵방산·건지산·황방산 등 외곽 산림·근린공원 △만경강·전주천·삼천·소양천 등의 물길 △공원과 기존 시설녹지, 완충녹지 등 소규모 녹지 △도심 가로수 등을 녹지·하천 생태축으로 연결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열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백제대로 주변 관공서·상가·병원·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바람길 숲 조성 등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이 줄어드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리 만나는 그 작가'

전주시, 독서대전 사전 프로그램
소설가 정유정 작가 초청 강연

지난 6일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 '2019 전주독서대전, 미리 만나는 작가' 프로그램인 정유정 작가 초청강연이 열렸다. 정유정 작가는 압도적인 서사와 치밀한 플롯, 거침없이 내달리는 문장,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생한 리얼리티,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등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이름 자체가 장르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소설가다. 또한 그는 인류 보편적인 주제인 '인간 본성의 이면'을 탐구하는 깊이 있고 폭넓은 시선으로 독자와 평단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 작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성장소설과 스타일

를 거쳐 판타지까지 △소설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소설의 뒷배기와 소설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2019 전주독서대전에서 은희경 작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19 전주 독서대전'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완관본문화관, 전주향교 일원에서 열리며, 시는 강연과 공연, 전시·체험, 학술·토론, 북마켓, 독서체험부스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예정이다. 모든 강연은 '2019 전주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www.jbook.kr)를 통해 사전 접수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완산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30-1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260대 접수

전주시가 차량 배출가스를 줄여 급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결과 총 5260대가 접수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당초사업물량인 4100대보다 1160대 초과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54억24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 42억100만원 △1톤LPG화물차 보급사업 2억6000만원 등 99억3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사업예산 18억5300만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후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기 중의 미세먼지농도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이를 미세먼지 저감량으로 산출하면 승용차 기준 3455대 폐차시 최소 2.69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시는 하반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11월 말 이전까지 3455대를 추가 폐차하면 배출가스5등급 등록차량이 2만4549대로 줄어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기와 특별전'에 전시된 기와 둘러보기
참석자들이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주시와 한옥마을비빔공동체가 지난 6일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에서 '기와 특별전' 개막식을 연 가운데 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야호학교,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 전시회

청소년을 위한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아홉살에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리빙콘텐츠티센터에서 야호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친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역예술가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해온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종료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들은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손수 만든 한지 브로치를 기념 선물로 전달하고, 작품 소감 및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야호학교 청소년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총 8회에 걸쳐 △한지로 보듬는 오색 육각함(한지) △나무로 이루는 감성 옷돌이관(나무)의 2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한지와 나무 분야의 전문예술인과 함께 한문화 소재(한지, 나무)를 활용한 손작업 교육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다. 완성된 작품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전에 전시되고, 공동 작품의 일부 성과물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상시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야호학교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국립 무형 유산 계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송효철 기자

귀성객·시민 교통 불편 해결

전주시, 추석 명절 교통종합대책 추진 11일까지 시설물 점검
12~15일 연휴기간 교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불편사항 처리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을 추석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청과 양 구청은 이 기간 동안 교통상황 파악과 각종 교통관련 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정체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과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경우 12일부터 15일까지 전면 개방되고, 동물원 주차

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노송천 주차장과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삼천2동·서신동·중화산2동·실내체육관·건산천 1·2공영주차장 등 6곳은 추석당일(13일)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성묘객 차량이 불편 것으로 예상되는 효자공원묘지와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1,280여대의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차량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주변도로는 8명의 근무자를 편성해 소동위주의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은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뉴스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